평생 잊지못할 감동이 있는 골프장
함평 다이너스티 컨트리 클럽
예약 : www.hpdynasty.co.kr 080)320-7700

메르스 시름 '뻥~' 무관심 설움 '뻥~'

"아! 16강" 18일 오전(한국시간) 캐나다 오타와 랜스다운 경기장에서 열린 2015 캐나다 여자 월드컵 조별리그 한국과 스페인의 경기. 스페인의 마지막 프리킥 골 찬스가 빗나가며 2대1 승리를 차지한 한국 선수들이 환호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소연·김수연 2골로 스페인에 2-1 역전…사상 첫 16강

22일 프랑스와 격돌…12년전 조별리그 패배 설욕 기회

한국 여자축구 대표팀이 국제축구연맹(FIFA) 여자월드컵에서 사상 첫 승을 따내면서 16강에 오르는 쾌거를 이뤄냈다.

윤덕여 감독이 이끄는 한국(FIFA 랭킹 18위)은 18일 캐나다 오타와에서 열린 조별리그 E조 3차전 스페인(14위)과의 경기에서 2-1 역전승을 거뒀다.

전반 29분 스페인 베로니카 보케테에게 먼저 한 골을 내줬으나 후반 8분 조소현(현대제철)의 동점 헤딩골, 후반 33분 김수연(KSPO)의 역전 골을 묶어 짜릿한 승리를 맛봤다. 1승1무1패가 된 한국은 조 2위로 16강에 올라 22일 F조 1위 프랑스(3위)와 8강 진출을 다투게 됐다.

2003년 미국 월드컵에서 조별리그 3전 전패로 탈락한 한국은 두 번째 월드컵 본선 출전인 이번 대회에서 첫 승을 거두면서 16강에 진출하는 의미 있는 성과를 냈다.

이날 반드시 이겨야만 16강에 오를 수 있던 우리나라는 1,2차전에 발목 부상으로 결장했던 박은선(로시얀카)을 선발로 내보내며 필승의 의지를 다졌다.

박은선을 최전방에 내세운 한국은 지소연(첼시)을 공격형 미드필더로, 좌우 측면에는 전가을(현대제철), 강유미(KSPO)를 포진시켰다. 미드필더에 권하늘(부산상무), 조소현, 수비로 이은미, 황보람, 심서연(이상 이천대교), 김혜리(현대제철)를 내세운 윤 감독은 주전 골키퍼로는 역시 김정미(현대제철)를 기용했다.

전반에 한국은 스페인에 줄곧 밀리는 경기를 했다. 전반 22분 빅토리아 로사다의 중거리슛으로 한국을 위협하던 스페인은 전반 29분 선제 득점을 올렸다. 전반 슈팅 수 2-8, 공격 점유율 42%-58% 등 전체적으로 열세를 보인 우리나라는 후반 대반격에 나섰다. 후반 초반 지소연의 왼발 슛이 상대 수비를 맞고 나갔지만 한국은 결국 후반 8분 승부를 원점으로 돌렸다.

강유미가 오른쪽을 돌파하며 올린 크로스를 조소현이 헤딩슛으로 연결, 1-1을 만든 것이다. 기세가 오른 한국은 결국 후반 33분에 역전에 성공했다. 김수연(KSPO)이 오른쪽 측면에서 크로스로 올린 공이 그대로 상대 골키퍼 키를 넘겨 골문 안으로 향하면서 극적인 역전 골이 나왔다.

한국은 후반 종료 직전 페널티 지역 정면에서 스페인에 프리킥을 내주는 위기를 맞았으나 스페인 소냐 베르뮤데스의 슛이 골대를 맞고 튀어나가면서 16강 진출을 확정했다.

한국은 22일 오전 5시(한국시간) 유럽의 강호 프랑스와 16강전을 벌인다. 프랑스는 FIFA 랭킹 3위로 18위 한국보다 훨씬 높은 순위에 올라 있다. 이번 대회에서도 F조에 편성돼 잉글랜드(6위)를 1-0, 멕시코(25위)를 5-0으로 완파하며 조 1위로 16강에 진출했다. 역대 월드컵 최고 성적은 2011년 독일 대회에서 4위에 오른 것이다. 지금까지 한국과 프랑스의 여자 축구 국가대표 맞대결은 2003년 미국 월드컵 조별리그에서 한 차례 벌어졌으며 당시 프랑스가 1-0으로 이겼다. /연합뉴스

윤덕여 감독 인터뷰

"후반전 측면 강화 작전 통해 프랑스전 도전자로 임할 것"

한국을 사상 첫 여자 월드컵 16강으로 이끈 윤덕여 대표팀 감독은 "마음고생을 한 선수들에게 고맙다"며 선수들에게 공을 돌렸다.

18일 2015 캐나다 여자 월드컵 조별리그 E조 3차전에서 스페인에 2-1 역전승을 거둔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윤 감독은 "힘든 과정을 거쳤고 마음고생을 많이 했으나 승리를 해서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16강전에 임하게 됐다"면서 "선수들이 독려한 대로 잘 해줘서 고맙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윤덕여 감독의 일문일답.

-월드컵 첫 승리와 첫 16강 진출의 소감은.

▲목표로 했던 16강 달성과 첫 승리를 따내 지도자로서 정말 선수들에게 고마울 따름이다. 나에게도 의미 있는 경기다. 선수들이 어려움도 많고 힘든 게 있었지만 이대로 주저앉을 수 없다는 생각을 했다. 내가 독려한 대로 선수들이 잘 해줬다. 16강에 진출하게 돼 고맙다. 나에게도 좋은 날이고 기억될 만한 날이다.

-프랑스와 16강에서 만나는 데.

▲힘든 과정을 거쳤다. 지소연(첼시 레이디스)을 비롯해 모든 선수가 마음고생을 많이 했는데 승리해서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16강에 나설 수 있게 됐다. 프랑스는 세계 여자 축구계를 이끌어 갈 수 있는 좋은 팀이라고 생각한다. 아직 우리 팀이 부족한 게 많지만 그래도 할 수 있는 최대치를 경기장에서 보여주겠다. 도전자로서 좋은 경기를 해보겠다.

-'역전 결승골'의 주인공인 김수연(KSPO)을 교체투입한 이유는.

▲전반전 양쪽 측면 공간을 스페인에 너무 쉽게 내어주면서 어려운 경기를 했다. 김수연이 부상으로 제 컨디션을 찾지 못했는데 오늘 후반전에 투입돼 좋은 역할을 해줘서 감독으로서 고맙게 생각한다. 특히 역전 결승골까지 터트린 만큼 다음 경기에도 좋은 컨디션으로 경기에 나설 것으로 믿는다.

-힘든 경기를 했던 이유는.

▲전반전에 스페인에 주도권을 내준 이유 중 하나가 중원에서 너무 쉽게 공간을 내주고 돌파를 허용한 게 컸다. 그런 점이 전반전에 잘못된 부분이었다. 그런 잘못된 점을 후반전에 교체된 선수가 역할 잘 해줬다. 중원에서 전반전에 하지 못한 좀 더 강한 압박을 해주면서 주도권을 쥐고 전세를 뒤집었다. 전반전의 아쉬움을 후반전에 잘 만회했다. /연합뉴스

살아나라 '닥공'…열어라 '골 문'

K리그 클래식 17R…광주 FC, 20일 성남 원정

프로축구 광주 FC가 5경기 연속 무패 행진을 잇는다.

광주 FC가 오는 20일 오후 4시 탄천종합운동장에서 성남 일화를 상대로 2015 K리그 클래식 17번째 경기를 치른다.

광주는 지난 17일 대전월드컵경기장에서 치른 대전과의 16라운드 대결에서 창단 첫 4연승을 노렸지만 상대 골문을 열지 못하면서 0-0 무승부를 기록했다. 팀 창단 첫 4연승 도전은 실패했지만 무패 행진은 계속되고 있다. 승점 1점을 더한 광주는 6승5무5패(승점 23)로 순위 변동 없이 5위 자리를 유지하고 있다.

17라운드 상대는 10위 성남이다. 순위 격차는 벌어져 있지만 승점은 4점차에 불과하다. 혼돈의 순위싸움이 전개되면서 경기 결과에 따라 순위 대변동이 일어날 수도 있다.

양팀에게 모두 어려운 경기다. 광주는 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 탓에 안방인 광주월드컵경기장을 비워주고 원정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 6월 들어 4번째 원정경기. 부상자도 많고 회복 속도도 더디다. 스쿼드가 얇은 만큼 베스트 11을 꾸리기가 쉽지 않다. 무더위라는 복병까지 더해지면서 체력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그나마 성남전을 앞두고 퇴장 징계를 받았던 정준연이 돌아오고 이찬동도 올림픽대표팀에서 복귀하면서 힘을 얻었다. 여름과 임선영, 송승민 등 중원의 움직임도 좋다.

시즌 초반 인상적인 모습을 보여준 성남은 침체기에 빠졌다. 황의조, 남준재, 김두현 등을 앞세운 공격 축구는 매섭지만 승점과 연결을 짓지 못하면서 최근 4경기에서 1무3패를 기록하는데 그쳤다. 5경기에서 10골을 허용하는 등 수비진도 불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조직력을 강조한 플레이를 하다 보니 선수들의 체력적인 부담도 많다.

광주는 지난 4월18일 성남과의 홈경기에서 '비기고도 진' 경기를 했다. 전체적으로 경기를 주도하고도 골 결정력을 살리지 못한 광주는 경기 종료 직전에 얻은 페널티킥 찬스까지 놓쳤다. 키커로 나선 파비오의 실축이 나오면서 패배 같은 무승부를 기록했던 광주다.

원정 4승2무2패. 상대 안방에서 더욱 높은 승률(62.5%)을 보여온 광주가 앞선 무승부의 아쉬움을 달래고 성남을 제물삼아 상승세를 이어갈지 주목된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